

# 연길시, 중국 민간문예 최고상 산꽃상 수상

### 〈농악장단—풍작의 기쁨〉 제 17 회 산꽃상 '우수민간예술공연작품'상 수상



연길시가 중국 민간문예 최고 권위 상인 산꽃상(山花奖)을 수상했다. 3월 30일, 제 17회 중국 민간문예 산꽃상 시상식에서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창작한 북악 작품 〈농악장단—풍작의 기쁨〉이 '우수민간예술공연작품' 영예를 성공적으로 거머쥐었다. 이는 길림성 역사상 중국 민간문예 최고상을 수상한 첫 사례로 새로운 역사를 쓴 쾌거이기도 하다.

중국 민간문예 산꽃상은 중국 민간문예 분야의 국가 최고상으로 중국 민간예술 창작의 정점을 대표한다.



〈농악장단—풍작의 기쁨〉을 공연한 예술인들

〈농악장단—풍작의 기쁨〉은 조선족 전통 농악무를 근간으로 풍성한 기쁨과 민족의 자긍심, 시대의 흐름을 하나로 녹여냈다. 힘찬 장단과 생동감 넘치는 공연으로 '여러 민족이 단결하여 함께 분투하고 함께 번영발전하는' 시대적 주제를 생생하게 표현해냈으며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독특한 매력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의 깊이를 전국의 관객 앞에 펼쳐보였다.

다년래 연길시는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힘써오면서 민족적 특색과 시대적 감각을 겸비한 문예작품을 꾸준히 발굴 육성해왔다. 이번 수상은 연길시가 민속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해온 생생한 실천의 결실이자 연길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사업에 대한 높은 인정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연길시 생활방식'(有一种生活叫延吉)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에 더욱 깊은 문화적 핵심과 정신적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값진 영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연길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무형문화유산과 문화관광의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우수 민간예술이 연길을 넘어 전국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 연길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

## 전국대학생가요제 연길서 열린다



3월 26일, '음악과 함께하는 연길 여행' 2026 전국대학생가요제 북경발표회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심화하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국적인 음악경연이다. 발표회 현장에서는 연길시 도시관광 선전 영상 〈연길식 생활방식〉이 상영되었다. 인기 명소, 지역 특색 음식, 청년들이 즐겨 찾는 장소 등이 영상 속에 펼쳐지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연길의 활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연길시 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소속

예술단이 〈소매춤〉, 〈장고춤〉 등을 선보이며 조선족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이번 가요제는 전국 100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틱톡 앱을 통해 '음악과 함께하는 연길 여행'(唱游延吉) 공식계정에 노래 영상을 올리면 된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좋아요'가 가장 많은 상위 20명이 6월 준결승에 진출하며 결승전은 오는 7월 연변노동자문화궁에서 펼쳐진다.

/ 신화사

## 장춘영화제작소 작품, 중국영화시상식에서 수상

최근, 중국 영화 121 주년을 기념하여 중앙방송총국(CMG)이 주최한 첫 'CMG 중국영화시상식'이 북경 안서호국제회의전시중심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가운데 여러 부분의 수상작과 수상자들이 발표되었다. 장춘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영화 《팽호해전》(澎湖海战) 제작진이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장춘영화제작소가 공동 제작에 참여한 영화 《장안의 려지》(长安的荔枝)가 '년도 크로스오버 역량'(年度跨界力量)을 비롯해 세계 부문의 영예를 받아안았다.

2026년 개봉을 앞둔 영화 《팽호해전》 제작진은 이날 행사장 레드카펫을 걸으며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제작진은 영화를 소개하는 한

편 새로운 예고편도 함께 공개했다. 또한 영화 《장안의 려지》의 감독 겸 주연 배우 대봉(大鹏)이 '년도 희극영화 남자배우상'을 수상하고 영화 엔딩곡 〈묘당외외〉(庙堂之外)가 '년도 창작가곡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힘을 모아 함께 맞는 봄'을 주제로 영화와 여러 분야가 함께하는 '영화+' 리브를 선보였다. 특히 중국 영화를 장르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며 뛰어난 작품과 창작자에게 의미있는 상을 수여하는 자리로 성장하는 중국 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 길림일보

## 연변주, '진달래홍' 문예봉사 프로젝트 가동식 개최

3월 27일,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예술계연합회와 주장애인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문예자원봉사자협회에서 주관한 '문예로 장애인을 돕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룬다—새시대

'진달래홍' 문예봉사 프로젝트 가동식이 주장애인문화체육활동중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동식에서 주문예예술계연합회 당조 서기 겸 주석 최홍녀와 주장애인연합회 당조 서기 겸 리사장 김화가 '새시대 진달래홍 문예봉사 거점

현판을 제막했다. 이어서 중요한 문서가 랑독되었는데 하나는 〈문예로 장애인을 돕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룬다—새시대 '진달래홍' 문예봉사 프로젝트 실행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문예로 장애인을 돕고 한마음으로 꿈을 이룬다—새시대 '진달래홍' 문예봉사 프로젝트 후원 지원 제안서〉였다. 행사에서는 또 주문예자원봉사자협회 대표가 주장애인문화체육활동중심에 정성껏 창작한 서화 작품을 기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문예봉사 프로젝트는 정기적인 예술교육, 서화교류, 촬영지도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의 장기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었으나 '따뜻한 예술교실', '한마음 공방', '어울림 무대', '꿈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변주 장애인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예술적 소양을 키우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 연변조선족자치주 장애인연합회



## 해남 해구에서 보고 느끼는 문화 매력



최근, 해남성관광및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文化和旅游广电体育厅)에서 주최한 '무형문화유산, 봄날의 상상' 주제 시장이 해구시 만상성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유산과 소비 공간을 결합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사진은 해구 만상성에서 열린 무형문화유산 주제 시장을 찾은 시민들.

/ 신화사

图说 我们的价值观

#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周松晓作